

# ‘김용구 파장’...광주시청 전방위 압수수색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 7개 실·국서 태양광 자료 등 가져간듯... 시정 불통될까 우려 광주지검, 1억9800만원 받은 김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광주시청에 대해 전례없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시정이 마비됐다. 압수수색한 사무실이 7개 실·국에 달렸고,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은 구속기소됐다. ‘김용구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용구(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건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9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S건설로부터 총 2억6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S건설의 자문을 맡아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 등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다른 건설사, 시중은

행의 자문을 하면서 같은 명목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광주시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모 은행과 다수의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광주시청 7개 실·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청은 이날 들어서만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날 환경생태국 압수수색을 통해 태양광 시설 건립 사업과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광주시급고 선정 관련 자료를, 건설교통국에서는 각종 인·허가 자료를 확보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무실은 김씨가 직·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해온 부서들이다.

김씨의 컨설팅 이력과 압수수색 부서를 조합해 보면 일단 핫이슈인 시급고 선정문제를 비롯해 최근 일단락 된 삼각동 고압송전탑 지중화, 각화동 S건설 도시계획 심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시청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세정담당관실, 산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 운영동 태양광발전사업, 도시철도 2호선과 제2순환도로 보조금 협상 등 광주시 대형 사업들이다.

검찰은 일단 구속된 김씨에 대한 수사 중 추가 혐의점이 발견돼 지난 21일 관련 업체 및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연전선상에서 이날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들과의 연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광주시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뒤숭숭하다. 검찰의 각 실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행여 시정에 불통이 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굵직한 시정 현안을 다루는 부서들이었다. 여러 실국이 동시에 압수수색 당하는 등 이례적이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해외 기업형 보이스포싱 범죄조직 적발

### 광주경찰, 22명 구속·6명 입건 해외도피 총책 등 14명 국제수배

‘해외 기업형 보이스포싱’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조직을 구성해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콜센터 관리자 이모(31)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운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도피 총책 박모(42)씨 등 1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적색)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외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453차례에 걸쳐 30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메시지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내역 등을 알려달라.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해 이를 빼돌렸다.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전화사기를 목적으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총책, 관리, 인출, 개인정보 수집, 상담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췄다.

조직원끼리는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단속에 대비한 행동 수칙과 범행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상담원을 상대로 전화 응대 요령까지 조직적으로 교육했다. 조직원이 탈퇴할 경우 가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기능의 구성원을 서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경찰은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고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17~25년 구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묘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묘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의 경우 이번 범행 외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돼 3명 중 가장 중한 25년이 구형됐다. 또 17년으로 상대적으로 구형량이 적은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잠작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 여교사는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의사 2명과 심리상담 전문 교수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증인은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극심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정도로며 앞으로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서 사건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29일 구속기소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故 백남기 농민 추모 열기...5·18 유공자 인정 여부 주목

### 80년 계엄조치 반대 6개월 수감 올해 초 유족이 광주시에 신청 투쟁본부, 부검 영장 재청구 비판 유족 “부검 불필요” 법원에 탄원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과 고(故) 백남기 농민의 고향 보성 등 광주·전남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 열기와 부당한 국가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고인의 유족이 올해 초 광주시에 5·18관련 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고인의 후배 조용문씨는 “당시 고인이 사경을 헤매지 않았다면 5·18유공자 신청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유족 입장에서 고인이 평생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5·18관련자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광주시를 찾은 유족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고 사경을 헤매이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5·18민주묘지에 안장하고 싶다”면서 고인이 참여한 민주화운동·반독재 투쟁을 다른 언론보도,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백남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이던 지난 1980년 5월8일 당시 박정희 유신 전당(전두환·노태우) 장례식을 주도했고, 5월15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27일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농민 백남기씨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최현배기자 choi@

일에는 중앙 4000인 한강도하를 이끌며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5월17일에는 군부 계엄확대 조치로 계엄군에 체포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31일 특사로 풀려나기 전까지 6개월여 수형생활을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 백남기 농민 등 500여명의 신청자(사망·행불·부상·연행·구금·수형자)들을 상대로 심의 중이며, 5·18관련 보상자 인정 여부는 내년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5·18관련자로 인정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에 5·18관련자 증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심사를 마치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되며,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도 가능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 관련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백 농민 관련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완료되고 유족 측이 원할 경우 우선 고인을 민족민주열사들이 묻힌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농민의 후배 조용문씨는 “생전 형님(백남기 농민)께서는 ‘5·18 희생자만 생각하면 죄스럽다. 5·18보상에 관해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에 말씀하셨다. 하지만, 형님 상태가 위중할 당시 유족과 주변 입장에서 돌아가실 경우 묻히실 곳은 국립5·18민주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남기 투쟁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전날 밤 백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사실을 은 국민이 알고 있는데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무려 317일 동안의 진로 기록이 충분히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딸 백도라씨 등 유족은 법원에 “검찰이 청구한 아버지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반려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 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전남 농민 200여명은 투쟁본부 측 요청을 받고 흑시 모를 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려고 28일 급히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노상방뇨 취객 “날 찍는 것 같아”...셀카 찍던 부부에 주먹질

○~20대 부부가 늦은 밤 산책하며 셀카를 찍다가 노상방뇨 중이던 남성이 부부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분변.

○~2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아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전 날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포장마차 앞 길을 건다가 취객 정모(28)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

고 목 졸림을 당하는 등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정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술에 취해 황실수술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시고 담배라에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내 모습을 사진 찍는 것 같아 주먹을 휘둘렀다. 워낙 술을 많이 마셔 젊은 부부가 셀카를 찍은 줄은 정말 몰랐다”며 뒤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중개  
법인**

#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p><b>숙박시설</b></p> <p>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p> <p>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p>	 <p><b>전원주택</b></p> <p>감정가 5억 4천만, 최저가 3억 7천만</p> <p>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b>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 (층별 입찰가)</li> <li>◆ <b>수익형 상가 빌딩</b>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접 / 3층</li> <li>◆ <b>가스 충전소</b>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12억 7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3기 6구 / 자동 세차기 / 화순 유입대로변</li> <li>◆ <b>고급펜션 및 주택</b>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li> <li>◆ <b>전통한옥식 전원주택</b>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li> <li>◆ <b>상가</b>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li> <li>◆ <b>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b>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li> <li>◆ <b>전원주택</b>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li> <li>◆ <b>숙박시설 부지</b>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li> <li>◆ <b>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b>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li> </ul>
--	--	--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